

■고향정당 - 권선홍 (주밀공파 38세, 부산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고향 단상 2

지난 11월호 종보에 실린 고향단상과 12월호 고향풍경에 이어지는 글이다.

먼저 증조모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 한다. 개인의 가정사를 옮기거나 하면 만신을 모셔다가 푸닥 거리를 하기도 하고, 소소한 일이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였다.

내가 국민학교 하급학년의 어린 시절, 동네에서 잘 사는 집의 만신을 같이 모시면 우리 집도 좀 잘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갖기도 하였다. 우리 집의 만신을 모시는 다른 집도 그리 잘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마 어린 눈에도 만신들 간의 우열이 조금은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또한 전기도 없던 시절이고 하여, 나무가 우거져 낮에도 으슥했던 고개나 상여집 같은 곳에서는 도깨비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들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반상차별의 모습을 보기도 하였다. 고향동네에서도 양반 체면상 상여를 베지 않다가 일제시대 때부터 메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동네 어른들로부터 들었다. 내 초중등학교 시절, 동네에 길흉사가 있으면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에게 어른들은 물론이고 젊은 사람들까지도 모두 그냥 이름만 부르고 하대하였던 기억이 난다. 그 사람의 부인도 동네에 결혼식이 있으면 하님으로 수고를 하였다. 아마도 양반과 상놈을 구별하던 마지막 세대가 아니었을까 싶다.

길로 우리 집안의 호적 등본을 보면 창씨개명한 흔적이 보인다. 그렇다고 어렵게 농사만 짓던 우리 집안이 친일하였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창씨개명과 관련하여 내 친구 집안의 경우를 소개하려 한다. 그 친구는 명문 광산김씨로 고한도 광산 곤광주였다. 일란 때 유명한 의병장 김덕령 장군의 고한석저촌에서 그 방계후손으로 태어났다. 그 집안 역시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결국 문종회의를 열어 창씨개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며칠 후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였다. 그때는 종래에 종례를 놓아 결국 할머니 대에서는 교회 나가는 것을 그만두었을 정도였다. 그러다가 70년대 중반쯤 어머니께서 다시 교회 다니기 시작하여, 시골 교회이기는 하지만 권사로 계시다 돌아가셨다.

다음으로 당시 고향동네의 문명수준이 별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1947년 증조모님께서 돌아가시자 동네 분들이 집안 간인데도, 교회 계속 나가면 상여를 매출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아 결국 할머니 대에서는 교회 나가는 것을 그만두었을 정도였다. 그러다가 70년대 중반쯤 어머니께서 다시 교회 다니기 시작하여, 시골 교회이기는 하지만 권사로 계시다 돌아가셨다.

교회에 대한 반감은 아마도 거의 집집마다 만신을 모시며 살아갔던 당시 상황과도 관련이 깊을 듯 싶다. 해마다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또는 우환이 있거나 하면 만신을 모셔다가 푸닥 거리를 하기도 하고, 소소한 일이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였다.

권기윤 복회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권기수 복회추진위원회 수석부회장이 개회 선언에 이어 내빈 소개가 있었다.

권숙동 안동종친회장을 비롯하여 권기호 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충근 복회추진위원회 위원장, 권기택 추진위원회 고문, 권오의 대종회 사무부총장, 권영건 부호장 공파종회장, 권영택 정조공파종회장, 권기창 안동대 교수, 권택기 전 국회의원, 권광택, 권남희 안동시 의원, 권영화 태사묘관리사무소 사무국장, 권영길 한국국학진흥원 연수원장, 권오건 능곡회장, 권주일 권사모 회장, 김갑년 부녀회장, 24개 읍·면·동지회장, 각 단체·모임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내빈 소개가 끝나자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묘소 망배, 권영길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는데 감사내용은 전년도 이월금 1천1백64만여원과 찬조금 5천6백88만여원을 모두 합하여 6천8백53만여원 가운데 도시락, 과일, 경품, 기념타월 등 지출이 5천5백29만여원으로 현재 잔액이 1천3백23만여원이 남아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권충근 추진위원회장은 인사말에서 “복회 한마음대회 때 친목과 화합으로 단합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안동권씨로서 자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안동종친회의 가장 큰 행사인 신년인사회와 복회 두 가지인데 신년인사회는 오는 2020년 2월 15일 안동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하나 많이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호 협의회장은 축사에서 “동지가 가까워 오는데도 날씨가 춥지 않아 좋다”며 “우리 족친들은 내부 결속을 잘해서 단합된 힘을 과시하자”고 말했다.

기타 토의에서 권기수 복회추진위원회 수석부회장은 “내년에 복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족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아울러 능곡회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나자 참석자 전원은 종친회관 1층에 자리잡고 있는 ‘양반밥상’식당에서 불고기를 겉들여 저녁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한편 안동종친회와 복회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오전 10시 안동국제탈춤공연장에서 족친 1,500여 명이 스텐드를 꽉 메운 가운데 <안동권씨안동종친회 복회 한마음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보도부장 권영건〉

2019년도 안동능우회 정기총회 개최

안동능우회(陵優會: 회장: 권충근) 2019년도 정기총회가 12월 10일 오후 5시 30분 안동시 경동로 ‘목향한우명품관’ 2층에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권오갑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묘소 망배, 회장 인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신임회장 선출,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권충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황금돼지의 해 마지막 달에 총회를 열어 감개무량하고 그동안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능우회가 발전되고 있다”고 말하고 “회장을 맡은지 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임기가 다 되어 세월의 빠름을 실감한다”며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더욱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권오갑 사무국장은 지난 9월 21일 충북 음성군 상곡면 방죽리 양촌 권군 유적지 탐사와 권영준 박사의 보학강좌 등 10가지의 경과보고와 권기원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이날 임원개선에서 권희태씨(33세, 경교공파)를 제10대 능우회 회장으로 선임하고 부회장에 권수환, 감사에 회장을 역임한 권충근, 사무국장에 권오갑씨를 유임시켰다. 권희태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능우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

安東權氏陵優會定期總



권희태 신임회장

겠으며 임기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임 권 회장은 안동경안고를 졸업, 한국통신공사에서 25년간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뒤 영양군 수비우체국장을 6년간 근무했으며 현재 영남농원을 경영하고 있다. 권 회장은 부인 백영순씨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날 회의 개정에서 제10조 자격상실 항에 ‘년 중 각종회의에 연속하여 3회 불참하거나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때는 자격 상실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타 토의에서 능우회 권영동 회원은 총회 때 참석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직접 재배하는 한라봉 한 상자를 선물로 전해왔으며 권영길 한국국학진흥원 연수원장을 총회에 참석,



능우회 정기총회가 목향한우명품관에서 열렸다.

자리를 빛내주었다.

안동능우회 회원이 만 65세가 되면 안동능우회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데 내년에는 5명이 능우회에 가입할 예정이다.

〈보도부장 권영건〉

안동권씨 충청북도 종친회 임시총회



안동권씨 충청북도 종친회(회장 권태호)는 12월 1일 오전 11시 청주시 모식당에서 제 7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권혁만 도종친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종친간의 친목과 지역 종친회의 정보들을 공유하며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이날 임시총회는 청주종친회(회장 권기태), 충주종친회(회장 권오현), 제천종친회(회장 권오현), 음성종친회(회장 권병택), 단양종친회(회장 권봉섭), 진천종친회(회

장 권오섭), 옥천종친회(회장 권영국) 등 7개 종친회에서 참석하였다.

임시총회에서는 지역 종친회 발전 방향과 보학 및 지역의 연간 활동을 보고하며 내년도 정기총회는 제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충청북도 종친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각 지역별로 순회하며 개최하여 종친 간의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사무처장 권혁만〉

권야초(權野樵) 선생은 누구인가?

야초(野樵)는 권○○의 호이다. 벼슬은 진사(進士)까지 지낸 것으로 보인다. 여러 문헌에 권진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옹(李厚翁, 1820~1898)보다는 10살 정도 연하이며 대원군 박하에서 활동할 정도로 대원군과 매우 친밀하게 교류했다. 대원군이 직접 써준 글도 여럿 있다. 말년에는 대구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누군가가 야초 선생의 회갑에 추화대구금곡권진사재승호야초주갑운(追和大邱金谷權進士在升號野樵周甲韻)이라는 제목으로 축하하는 글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름이 재승(在升)이다. 또 다른 글에서는 재승(在昇)이라는 이름도 등장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야초동영(野樵東詠)의 저자가 권재효(權在孝)로 검색된다. 그동안 권회원 족친이 야초 선생이 누구인지 백방으로 찾았으나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종보를 통해 야초 선생을 찾고자 한다. 아시는 분은 대종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란다.

안동권씨 종보대금을
납부해주신 족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힘입어
더욱 알찬 종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7 ~ 12. 24. 총 납부자 64명
/지사 3곳 총 3,220,000원

※권기웅(대구) 30,000	권오규(서울동작) 30,000	권중오(서울구로) 30,000
권경한(포항) 30,000	권오극(안동) 30,000	권중우(서울성동) 30,000
권국노(익산) 30,000	권오기(안동, 울릉) 30,000	권진택(목포) 30,000
권규봉(순천) 30,000	권오복(서울송파) 30,000	권창택(김포) 30,000
권기상(대전) 30,000	권오성(서울강남) 30,000	권태경(제천 송학면) 30,000
권기색(서울강서) 30,000	권오성(장수) 30,000	권태근(평창) 30,000
권기영(김포) 30,000	권오식(대구 남구) 30,000	권태주(전주) 30,000
권기웅(문경, 점촌3동) 30,000	권오천(김포) 30,000	권태진(부여) 30,000
권대현(인천) 30,000	권오필(경주) 30,000	권태칠(포항) 30,000
권동한(포항) 30,000	권오학(포항) 30,000	권항(서울영등포) 30,000
권병철(포항) 30,000	권오현(대구) 30,000	권혁기(경주) 30,000
권복성(옥천) 30,000	권오현(연천) 30,000	권혁길(강릉) 30,000
권상만(평창) 30,000	권용국(서울구로) 30,000	권혁복(고양) 30,000
권순덕(진주) 30,000	권용운(제천) 30,000	권혁상(대구) 30,000
권순정(안동) 30,000	권윤호(대구) 30,000	권혁준(대구) 30,000
권순우(서울관악) 30,000	권은수(포항) 30,000	권형남(대전) 30,000
권승만(울산) 30,000	권이현(익산) 30,000	권희경(인천) 30,000
권영국(대구) 30,000	권인규(정읍) 30,000	2020년 선납자
권영기(영덕) 30,000	권일원(대전) 30,000	권기열(서울구로) 30,000
권영목(문경) 30,000	권일홍(보령) 30,000	지사자국 납부지역
권영탁(안동) 30,000	권재목(부산) 30,000	마창종친회(권태형) 600,000
권영호(상주) 30,000	권재수(광주) 30,000	복야공파종친회(권기호) 400,000
권영환(세종) 30,000	권중상(서울강서) 30,000	여주종친회 300,000

*납부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종회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